

노동부 장관, SPC삼립 시화 공장 관련 엄중 대응 지시

- 감독관 급파하여 기계 사용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즉시 입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월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총체적 안전 경영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올해 2월 대형 화재에 이어 불과 1년 사이 세 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산지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 긴급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하였다.

아울러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SPC 도세호 대표 이하 임원 20명에게 직접 사측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향후 안산지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가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온남이 (044-202-8902)
담당 부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기현 (031-412-1976)
		담당자	근로감독관	이창규 (031-412-1942)